제54회 이사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2019.05.27.(월) 11:00 ~

2. **회의장소** : 드림파크문화재단 회의실

3. **출석임원** : 5명
   (1) 박광칠 이사 (2) 김미화 이사 (3) 이기호 이사 (4) 진선호 이사
   (5) 권승희 감사

4. **결석임원** : 1명(장정구 이사)

5. **배 석 자** : 사무국장 등 직원 14명

6. **부의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안자	제안부서	의결내용
제2019-6호 제2019-7호	선임이사(3명) 연임의 건 2019년 고유목적사업활성화실행계획	사무국장	사무국	심의사항

7. **회의 주요내용**(요약)

□ 의안 제2019-6호 ⇒ 선임이사(3명) 연임의 건 : 심의사항 ⇒ "원안의결"

□ 의안 제2019-7호 2019년 고유목적사업 활성화 실행계획

8. 기록자 : 송 용 원

위 결의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함.

2019. 05. 27.(월).

이사장 직무대행 박 광 칠 ㊞

이 사 성 지 원 ㊞

이 사 김 미 화 ㊞

이 사 이 기 호 ㊞

이 사 진 선 호 ㊞

감 사 권 승 희 ㊞

제54회 이사회 회의전말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이사장님은 궐위 중이시고, 환경부와 장정구 이사님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3명이 불참이나 이사회 성원 재적이사 총 7명 중 참석 이사 4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드림파크문화재단 제54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	○ 금일 안건은 심의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	○ 심의안건 의안번호 2019-6호 선임이사 3명 각 연임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2019-6호 선임이사 세 분에 대한 각 연임 안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사님들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신규이사 선임 또는 기존이사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사님들이 신규이사 후보자를 추천을 하였고요. 금일까지 신규이사 추천내역서에 따라서 기존이사님들 세 분의 연임을 결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붙임에 기존이사 세 분 김기화 이사님, 장정구 이사님, 이기호 이사님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규정 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분씩 선임하는 과정에서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이사	○ 제가 나가면 되나요?
사무국장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사장	○ 심의의결 전에 정관 제18조 의결 제척사유 제1항에 의거 임원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는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인 의결을 위해 본인의 연임안 의결 시에는 해당되시는 분은 옆방으로 이동해주시고, 의결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미화 이사님 연임안 제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사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연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이사장	○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	○ 다음에 김미화 이사님 들어오시고요. 정족수가 딱 3명이라.
이기호 이사	○ 장정구 이사님 하고 내가 나가야죠?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 장정구 이사님이니까 안 나가셔도 됩니다.
이기호 이사	○ 근데 본인 왜 안 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오셨어. (웃음)
이사장	○ 다음은 장정구 이사님의 연임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호 이사	○ 먼저도 말씀했듯이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바쁘신데 재단 일을 보시겠습니까?” 먼저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앞으로 이사회를 잡을 때는 환경부나 이 사람들하고 다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날짜 약속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은 내가 솔직히 그래요.
이사장	○ 이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 건은 장정구 이사님께서 한번 전달을 해서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오실 수 있도록.
이기호 이사	○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참석 꼭 좀 해달라고.
이사장	○ 그렇게 하고 환경부는 아마 연임안이니까 거긴 일부러 못 오셔도. 그렇게 수용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사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연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이사장	○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 다음 이기호 이사님인데 이기호 이사님은 절대 엿듣지 마시고.
이기호 이사	○ 예. (웃음)
이사장	○ 다음은 이기호 이사님의 연임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이사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연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이사장	○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	○ 들어오십시오, 이제. 다음 의안번호 2019-7호 2019년 고유목적사업 활성화 실행계획에 대하여 소관업무 부서장인 문화사업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부장	○ 2019년 고유목적사업 활성화 실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전년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을 3천만 원 미만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대체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비로 1억 6600만 원 증액했고요. 그래서 보강한 부분이 불우이웃돕기사업보다는 문화사업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했습니다. 총 14개 사업으로써 기존에 하던 사업은 6개가 되겠고, 신규사업은 8개가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소외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수요조사는 다 완료했었는데 자금 사정상 추진을 못 해서 올해 이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문예창작활동 지원 사업 해서 8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감자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승마장 옆에 보면 텃밭이 있습니다. 면적은 한 2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기다 밭을 일구는데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직접 저희가 밭을 갈고,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비닐 씌우기 사업을 인천사회봉사협의회와 같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땀 흘려서 해서, 저렴한 예산 가운데 해서 감자를 심어서 현재 감자가 다행히 올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행복 나눔이 되겠습니다. 김치축제 행사는 서구지역 불우이웃에 대해서 김장 나눔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어르신 치매예방. 최근에 치매가 많이 대두돼서 미래복지요양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 불우연탄, 쌀 등 지원은 작년도 하던 사업으로써 금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4번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봉사협의회 등과 협의해서 12월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작년에 대상가구를 조사했는데 비가 샌다든지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했는데 가장 열악한 대상을 1개 단체와 10개 가구를 저희가 지역발전회와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최종 완료해서 대상 가구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7번 드림파크 나무심기 행사는 그동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식목행사에 대해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묘목을 구매해서 290만 원어치를 지원해서 4월 달에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8번 사랑의 도시락 반찬 나눔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서 500명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도시락 반찬 나눔 지원행사 계획에 있습니다. 9번 복지시설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복지센터에다 비용이 한 1천 500정도 들지만 재단에서 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구를 통해서 5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들여서 미래복지재단 요양센터에다 녹지라든가 화단조성,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구노인복지관과 협의해서 하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것인데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11번. 지역아동 문화체험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다 공촌동 역사기행 생태체험을 할 수 있게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생태 역사기행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어린이 공부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취약계약 어린이를 대상으로써 930만 원 예산을 동원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강사료 등의 시설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공연 지원으로써 영향권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발전회를 찾아가서 소공연 공연팀이 찾아가서 지역주민이 좋아하는 문화공연팀을 구성해서 **에서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문예창작활동 지원은 서구청이라든가 서구문화재단에서 추천 받은 동아리 또는 창작활동가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간을 공사와 협의해서 개방되고 있는 야생화단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재능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와서 공연할 수 있고. 또 주말에 야생화단지에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서 소공연 공연을 함으로써 관람객들한테 여기에 대한 만족감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이사	○ 어쨌든 종류가 많은 걸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매립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주셔서, 현재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하고 매칭해서 검진 받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면 더 복지가 빛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기호 이사	○ 안을 이렇게 보니까 잘 짰고. 근데 8쪽에 지역아동 문화체험행사 지원 공촌동에서 *** 운영을 지역 내 아동 2개. 이게 배경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가 영향권이 법정동이 4개인데 이 대상을 어디 2개소를 잡으면 어떻게 하는지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지원하고도 왜 우리 쪽은 안 해주냐, 우리 왕길동도 있는데 어느 지역 누구는 해주냐. 이런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화사업부장	○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영향권 전체 내에 있는 아동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를 다 포함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기호 이사	○ 어디? 어느 쪽에?
진선호 이사	○ 이게 법정동에서 2개밖에 없어요? 아동지역센터가?
문화사업부장	○ 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왕길동에 먹자골목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단4거리 쪽입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진선호 이사	○ 아니, 그러면 김포나 양촌, 경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문화사업부장	○ 예, 지역아동센터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호 이사	○ 없어요?
문화사업부장	○ 예.
이기호 이사	○ 그래서 나는 하는 건 좋은데 괜히 또 이쪽만 하고 다른 지역은 배제가 되니,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민원이 없길 바랍니다.
문화사업부장	○ 알겠습니다.
이기호 이사	○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괜히 민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문화사업부장	○ 예. 그리고 김미화 이사님이 말씀하신 지역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은 다행히 여기 영향권 지역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몇 십만 원 들여서 전 주민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넣었습니다.
진선호 이사	○ 14번 자세히 다시 한 번만 설명해줘 보세요.
문화사업부장	○ 14번은 보면 문화라든가 성악을 하든가 개인이 바이올린을 하든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든가 어떤 어디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연 장소와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취지로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야생화단지 개방해놓았는데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와서 개인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서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활성화도 되고, 야생화단지 개방한데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진선호 이사	○ 이거는 잘 하셨네. 주민들이 와서, 옛날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보는 거 아니야. 식상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동하게 되면 와서 추억에 남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문화사업부장	○ 감사합니다.
권승희 감사	○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고유목적사업 내역을 보면 기존사업이 6개, 신규사업이 8개인데 기존사업은 계속 된 이월 사업이란 말입니다.
문화사업부장	○ 예, 그렇습니다.
권승희 감사	○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리는 게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14개인데 1번에서 6번, 8번, 12번 이런 건 제 생각에는 거의 불우이웃돕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했다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취약계층과 관련 있는 사업예산으로 한 6천 4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한 50% 정도가 불우이웃돕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은 어떤 건 양쪽에 걸치는 것도 있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고, 13번 같은 건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 재단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성격이 있어요, 보니까. 너무 고유목적사업이. 그리고 제가 아침에 와서 목적을 보니까 우리 정관의 목적이 “매립지 및 주거환경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지역 환경 분야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 매립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재정도 취약하고 수익사업도 없고. 제가 저번 예산이사회 할 때 보니까 예산할 때 보니까 예산서 보면 수익이 나지도 않아요. 이익이 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참 굉장히 좋으신 일인 건 틀림없지만 정관의 목적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아까 진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보면 수익이 나지 않았던데 이건 왜냐하면 고유목적이라고 하는 건 수익이 나야, 우리가 저쪽 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수익이 나야 하는 것이지, 그 수익도 안 나는데 고유목적으로 쓰면 누가 기부를 많이 합니까, 우리한테? 물론 지정위탁도 있는데. 기부금도 없이 이월된 예산을 써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저번에 예산서 한번 비교해보면 제가 그때 예산서 봤을 때 제 기억에 수익이 안 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우리 그런 면을 봐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물론 다 예산이 통과가 됐겠지만 꼼꼼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제가 첨언해 드립니다. 제가 재단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이사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사업부장	○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화사업을 확대하고, 저희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억 2600은 저희 재단으로써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해놓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승희 감사	○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익이 나서 고유목적이, 설사 불우이웃돕기 뭘 하더라도, 취약계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전년도 이월된 걸 헐어서 써버리면 자꾸 줄어져버리잖아요.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되고 유지발전을 해야 되니까, 성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사업부장	○ 알겠습니다.
진선호 이사	○ 이사장님,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 좀 갖다 주십시오.
이사장	○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재단이라는 그 부분도 고민하고 문화 쪽에 더 비중을 두도록 그런 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기호 이사	○ 그리고 부장님, 우리가 여기 14가지인데 공사에서도 이런 쪽에도 지원하는 게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볼만 한 거 아니에요? 공사에서도 또 하는 게 있어. 그죠? 그리고 재단에서도 해. 이런 것은 좀 중복되는 거를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이거를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검토해서.
문화사업부장	○ 그건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중복되는 거는 뺐습니다.
이기호 이사	○ 그렇죠. 굳이 공사에서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이걸 한다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문화사업부장	○ 하기 전에 직원 제안도 받고 아이디어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 낸 직원들한테 시상도 했고 그랬습니다.
김미화 이사	○ 잘 하셨어요.
문화사업부장	○ 중복되는 사업은 뺐습니다.
이사장	○ 좋은 제안들을 많이 주시고 지적도 주셨는데 다 이의가 있어서, 사업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도 하고 해서 의논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 〈없습니다.〉
이사장	○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러 이사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모두 반영돼서 의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사항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	○ 어려운 일인데 연임을 허락해주셔서 같이 숙고하듯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들은 가급적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해서 재단의 운영발전과제를 공유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런 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연임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이사회를 같이 꾸려 나가실 이사님들과 여기 또 당·청에서 오신 관계자들이 다 함께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 〈일동 박수〉
진선호 이사	○ 이사장님, 끝나기 전에 야생화단지를 해갖고 한 달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이번 25일 되면 한 달 되는데 공원관리 처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 받은 거나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문제점이라든가.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화공원처장	○ 안녕하십니까? 문화공원처장 박춘봉입니다. 저희가 5월 25일 날 야생화단지를 개방했습니다. 지금까지 3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민원접수 된 사항은 크게는 없는데 저희가 당초에 개방할 때 예상했던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한 민원내용은 저희가 식수를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음수대 문제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매점 같은 물이나 음료수를 파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예상 인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재단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 개장할 때는 주말에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방문하셨고,

발 언 자	발 언 내 용
	평일에는 700명 정도가 방문하셨는데 지금은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햇볕이 따가워서 그런지 지금은 주말에 800명 정도, 주중에는 400명 정도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이사님들도 야생화단지를 방문하시고 그랬을 텐데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바로 저희한테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호 이사	○ 제가 보니까 주중에는 유치원 차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내리는 걸 보니까 3살, 4살 된 애들이야. 여기 와서 보니까 포토존이라고 그러나? 사진 찍을 장소가 부족하고. 그냥 야생화 어른들만 보는 것 쫙 펼친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주중에는 대부분이 유치권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식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먼저 김포 유치원 교사가 자살한 이유가 이 내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검단마을, 김포마을 수영장 앞에서 유치원 애들 이거 뭐야, 돗자리를 하는데 문제가 돼갖고 그거를 카페에 올리고 그래서 김포 유치원 교사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오면 첫째로 신경을 쓰셔야 돼. 애들이 보니까 귀엽긴 귀엽더라고. 얼굴이 빨개져갖고 날씨가 더우니까 다행인데 위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위생하고 안전이. 괜히 또 여기 와갖고 잘못돼갖고 안전사고라도 나면 카페에 올린다면 그게 또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위생이야 우리는 파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문화공원처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를 지역주민 일곱 분이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올 때는 특별히 그분들한테 지시를 해서 주변이라든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존은 달팽이광장에 저희 공사게이트를 설치해놨고, 그다음에 사진 찍을 공간을 재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조경을 꾸며서 그것은 조만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화 이사	○ 지난번에 그쪽이 뱀이 많다 그러던데 뱀 문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문화공원처장	○ 저희들도 제초작업도 하고,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반이고 이런 것을 사서 사전에 살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하기는 힘들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는 곳, 그다음 숲이 많이 우거진 곳 이런 데는 백반이고 이런 걸 살포를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호 이사	○ 출입금지라고 다 막아놨던데 보니까. 근데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문화공원처장	○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저희가 고쳐야 될 점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진선호 이사	○ 오늘 오신 김에 구명 한번 해보시죠.
이기호 이사	○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미화 이사	○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사장	○ 이상으로 문화재단 제54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